

일본 국민배우 코지의 '아름다운 삶'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빔 벤더스 감독 '퍼펙트 데이즈'

언젠가 어느 택시 기사님께 게서 들은 얘기다. 개인택시를 몰기 시작하면서 정성스레 차 청소를 하고 나름대로 시트를 깨끗하게 하려 애쓰고 다녔는데, 그게 되레 불편하다는 승객의 소리를 접한 후부터 칼각 보다는 약간의 흐트러짐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 머치'를 꺼려하거나 불편해 하기는 하다. 과하지 않은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디지털 시대에 첨단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기보다는 때로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도 챙겨가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

감독은 여기에 주목했던 듯, 일본 대도시에 있을 법한 두드러지지 않는 레트로 감성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도쿄 시부야에서 어느 화장실 청소부의 일상이 펼쳐진다. 이른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빗질 소리에 히라야마(배우 야쿠쇼 코지)는 잠이 깬다. 출근준비를 마친 그가 문을 열고 나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이다. 날씨를 체크하는 걸까, 그러기에는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하늘이라는 자연과의 짧은 굿모닝 인사일지도 모른다. 작은 트럭에



빔 벤더스 감독 '퍼펙트 데이즈'.

㈜티캐스트 제공

오르면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 출근길에 올드 팝이 흘러나오도록 한다. 오늘의 음악은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그가 차창을 통해 쳐다보는 하늘에 도시의 상정인 스카이트리가 비친다. 공중화장실 변기며 수전을 거울을 비춰가며 빈틈 없이 닦아내는 그를 두고 뒤늦게 출근한 젊은 동료 타카시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타박이다. 땅거미가 어둑해지면 퇴근길에 오르고 집에 돌아와 책을 읽다 잠이 든다. 미국의 문호 포크너의 소설을 읽는 그의 모습은 과거에도 그가 화장실 청소부였을까 의구심을 자아낸다.

평온한 그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는 있다. 데이트 자금 때문에 시무룩해진 타카시는 히라야마의 카세트 테이프에 눈독을 들이고 가격을 물어보러 나서는데 뜻밖에도 귀한 테이프라 1만 2000엔이라는 시세를 듣자 팔자고 조른다. 히라야마는 자신의 일상의

한부분인 이 테이프를 팔 리가 없다. 결국 호주머니를 털어 지폐 몇 장을 타카시에게 건네는 것으로 상황을 끝낸다. 휴일이 오면 그의 루틴은 좀 더 색달라진다. 필름 가게를 들러 현상을 맡기고 새필름을 산다. 맑은 날씨와 하늘, 나무를 카메라에 담고 사진을 정리한다. 한 주일 동안 읽을 책도 헌책방에 가서 골라온다. 해가 지면 단골 이자카야에 가서 한잔을 기울이는 재미도 즐긴다.

그의 일상을 주욱 따라가며 관찰을 하다보면 그에게 일상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일이 아니라 마치 귀중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여 뭘지 모르게 존경스러워진다. 영화는 그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 가솔한 조카 니코가 찾아오는 시퀀스로 이어진다. 영화는 설명도 없고 대사도 별로 없다. 특히, 히라야마의 대사는 매우 적다. 그렇지만 그

의 얼굴은 일상, 곧 시간의 흐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임이 읽혀진다. 오래된 물건, 노이즈가 섞인 카세트 테이프 음악과 필름 카메라에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담으며 중고 문고판을 읽는 작은 행복에는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일상에 대한 감사의 식인 양 겸허함이 느껴진다. 답답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디테일한 레트로 결의 아름다움은 어느덧 객석에 스며든다. 히라야마가 등을 돌리고 온 과거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보거나 현재의 일상이 새삼 소중하고 행복한 것임을 곱씹게 할는지도...

별다른 설명 없이 과묵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관객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어 생각할 여지가 따른다.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일상을 긍정하는 일은 어쩌면 삶에 대한 예의일 수 있다. 애초에 독일의 거장 감독으로 알려진 빔 벤더스 감독에게 'The Tokyo Toilet' 프로젝트 기념 단편영화 제작이 의뢰되었다. 도쿄 시부야구의 17개 공중화장실을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새롭게 단장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감독은 이를 스토리가 있는 장편으로 만들어 보겠다 역제안을 했다 한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2023 칸 영화제에 진출했고 배우 야쿠쇼 코지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송강호 배우처럼 일본의 국민배우인 야쿠쇼 코지는 우리에게 '셀 위댄스' (2000)로 알려진 배우다. 공무원이었던 그의 이력이 영화에 녹아든 것처럼 찰떡이었던 배역으로 기억한다. 이 영화에서도 다른 히라야마는 상상이안 갈 만큼 히라야마로서 변신이 되어 있어 국민배우 답다는 생각이다. 7월 3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프로의 책임감



최재수

한규빈

취재2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책임감. 국어사전에서는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자는 최근 광주FC가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을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

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책임감 때문에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취재 결과 광주 구단의 일부 직원들이 스완지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책임감 없이 행정을 한 것인데 사무처 소속 A씨가 최초 오퍼를 받은 뒤 선수운영팀장을 건너뛰고 간부 B씨에게 보고했고, 이들이 노동일 대표이사에게 이적을 수락할 것을 강하게 설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특정 에이전트에게 독점 협상권을 제공하기 위한 위임장도 작성했

고, 뒤늦게 이정호 감독과 선수운영팀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노동일 대표이사과 선수운영팀장이 수습에 나서면서 이적료 120만달러(약 16억6000만원)에 합의는 이루긴 했으나 짝 짝한 뒷맛이 남았다.

광주FC의 사령탑인 이정호 감독도 이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감독은 "우리 구단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엄지성은 광주시의 자산이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일 대표이사가 묻지 않았다면 코칭스태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적이 결정됐을 것이다. 비상식적인 협상 과정이었다"고 작심 비판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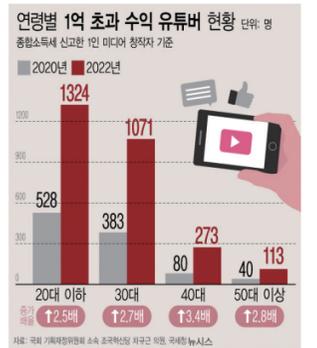
다.

광주 구단은 이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또는 인사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선수운영팀장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FC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팀이다. 연간 최소 1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광주 구단과 해당 직원은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다. 조직기강을 관주 세우고 시민과 팬들이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